
First mover, K-대학을 향한 담대한 혁신
「글로벌대학 30」 추진방안

2023. 4.

교 육 부

목 차

I. 추진 배경.....	1
II. 기존 대학지원 정책 진단 및 변화 방향.....	2
III. 정책 추진 여건.....	3
IV. 비전 및 목표.....	4
V. 새로운 대학혁신 추진전략.....	5
VI. 2023년 글로벌대학 지정(안).....	13
VII. 성과관리.....	19
VIII. 추진체계 및 기타 사항.....	21
IX. 향후 추진일정(안).....	22

I. 추진 배경

- **우리 대학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혁신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가?**
 - 학령인구 감소와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대학교육체제 전반의 변화와 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되고 있으나,
 - 국가경쟁력에 비해 대학교육 경쟁력은 하위권에 정체된 상황(IMD평가)
 - ※ 국가경쟁력 ('18) 27위 → ('19) 28위 → ('20) 23위 → ('21) 23위 → ('22) 27위/63개국
 - 대학경쟁력 ('18) 49위 → ('19) 55위 → ('20) 48위 → ('21) 47위 → ('22) 46위/63개국
 - 4차 산업혁명과 기술진보는 대학 교육과정의 혁신을, 디지털 시대와 팬데믹 경험은 AI 등을 활용한 교육방법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 여전히 학문간, 교수간 견고한 벽을 유지하며 공급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 ※ 세계의 명문 대학은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배출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
-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으로서 지역대학은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 수도권-비수도권 격차가 점차 심화됨에 따라 지역 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며, 비수도권의 지역 소멸 요인으로 작용
 - ※ '21년 인구감소지역(89곳) 중 85곳이 비수도권 지역('21.10, 행안부)이며, '21년 미충원 신입생 40,586명 중 30,458명(75%)이 지방대학에 집중
 - 지역 우수인재들이 가고 싶어 하고, 지역발전의 허브 또는 싱크탱크로서 기능하며 지역에서 존중받는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 육성 절실
 - ※ 스웨덴 말뫼시는 말뫼대의 혁신적 인재양성과 연구개발 지원으로 유럽 최고의 스타트업 도시로 도약
- **국가와 지자체는 대학의 과감한 자율적 혁신을 지원하고 있는가?**
 - 대학별 특성과 지역 여건이 상이함에도,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지원 방식으로 인해 대학이 자율적 혁신을 추진하는 데 한계
 - 공모방식으로 진행되는 각 사업별 사업 신청서 작성에 많은 행정력을 소모하는 반면, 지역 발전 및 대학 혁신과는 무관한 구조로 사업 추진
 - 국가-지자체-대학간 협력적인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기존의 틀을 획기적으로 탈피할 수 있는 수준의 자율성 보장 및 규제혁파 필요

Ⅱ. 기존 대학지원 정책 진단 및 변화 방향

□ **계획**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기준 제시 → **대학 주도의 자율적 혁신**

- 중앙정부가 수립한 획일적·하향식 계획의 틀에 맞춰 사업을 운영해야 함에 따라 대학은 지역과 대학의 발전을 위한 혁신 추진에 한계
- ⇒ 대학이 자율적으로 지역 여건과 대학 특성을 고려한 사업 방향 설정 및 구체적인 내용 기획·설계하는 상향식 혁신 체계로 전환

□ **목표** 소수 사업단 중심의 성과 달성 → **대학의 전면적 체질 개선 지원**

- 학과중심, 사업단 중심의 프로그램 기반 재정지원사업은 대학의 전면적 혁신과 구조개혁을 이끌어내기에 한계
- ⇒ 고등교육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과감하고 미래지향적인 대학 전반의 혁신을 지원하는 대학 단위 전략적 지원 방식으로 전환

□ **재정** 사업별 분절적 지원 → **통합적 재정지원으로 자율적 운용**

- 사업별 예산이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칸막이형 예산이 그림자 규제로 작용하여 현장적합성 있는 예산 집행 저해
- ⇒ 통합적 재정지원으로 대학이 자율적인 예산 운용을 통해 대학 스스로 과감한 혁신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

□ **규제** 혁신의 걸림돌에 대한 고려 미흡 → **과감한 규제 혁파 추진**

- 대부분 사업이 대학 혁신을 목표로 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와 규제는 여전히 경직적이어서 실질적으로 대학의 자율 혁신 추진이 곤란
- ⇒ 과감한 혁신 추진에 걸림돌인 규제는 신속히 개혁하여 대학이 혁신에 집중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지자체** 대학 지원에 소극적 → **지역대학과 상생하는 파트너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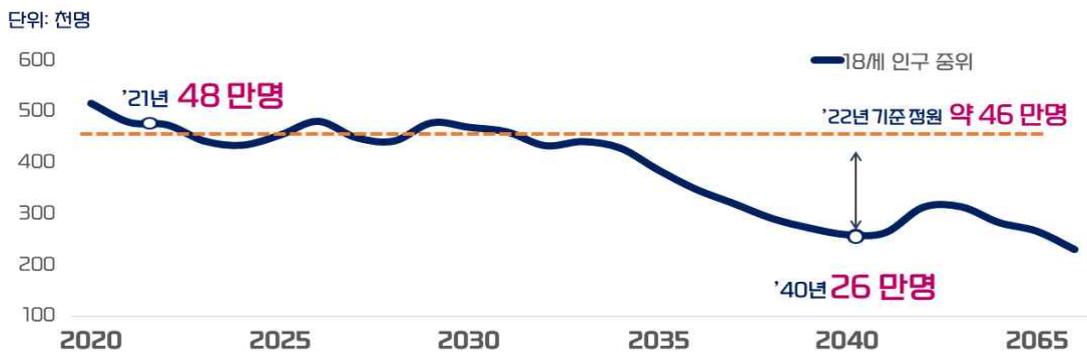
- 지역발전의 허브로서 대학의 역할에 대한 고려 및 투자 미흡
- ⇒ 대학·지자체·지역산업체가 함께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기획

Ⅲ. 정책 추진 여건

□ 향후 10~15년은 대학 혁신의 마지막 “골든타임”

- 앞으로 20년 뒤 입학자원이 현재에 비해 절반 가까이 감소하며, 존폐 위기에 놓이는 대학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입학자원 추계(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1.) ▮



- 기술·지식의 빠른 발전과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기존의 대학 학과 체제로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에 한계

□ 새 정부는 지역중심의 과감한 대학혁신이 촉진될 수 있는 여건 조성 주력

- 대학 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하여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도입

※ RISE 시범지역 운영('23년) → RISE 전 지역으로 확산('25년)

- 대학의 자유로운 교육·연구 활동을 지원하고자 대학 설립·운영 4대 요건 완화, 정원조정 자율화, 대학평가 폐지 등 각종 규제 완화 노력

※ '대학의 자율적 운영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규제개혁 및 평가체제 개편 본격화'('22.12.16.)

- 사회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해 수요자 중심 학사구조 개편·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유연한 학사구조를 대학개혁 핵심과제로 추진

👉 **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대학이 과감한 대전환을 할 수 있도록 대학지원 전략을 전면 혁신하고, 대학의 혁신 모델로서 글로벌대학 육성**

IV. 비전 및 목표

비전

국가-지역-대학의 세계적 경쟁력 동반 상승

목표

- 학과 간, 대학-지역-산업 간, 국내·외 간 벽 허물기
 - 대학-지자체-지역 산업계 탄탄한 파트너십 구축
 - 글로벌 수준의 대학-지역 동반 성장 모델 선도
- ⇒ 이를 위한 **마중물로서 글로벌대학 30교** 내외 육성

글로벌대학 : 담대한 혁신으로 지역의 산업·사회 연계 특화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

추진 전략

대학 외부

① 지원 전략 혁신

① “선택과 집중” 전략

대학 혁신 성공모델 창출 지원을 통한 대학 혁신의 방향 제시

② 범부처·지자체간 장벽없는 지원

혁신에 필요한 규제 특례, 범부처·지자체 재원 집중 지원

③ 수요자 관점의 대학혁신 지원

민간전문가(글로벌대학위원회) 주도 계획 수립부터 지정·평가 지원 추진

④ 스마트한 지정 및 성과관리

대학이 부담없는 지정·관리 방식, 데이터 기반 효율적 성과관리

대학 내부

② 대학 구조·운영 혁신

① 산학·지역협력의 허브화

지역과 산업의 수요를 반영한 인재양성·연구·창업 등 추진

② 대학 내·외부의 벽 허물기

학외자의 대학운영 참여 확대
지역사회와 학생의 수요를 반영한 학사운영 및 내부 체제 개편

③ 대학 혁신 추진체계 운영

총장의 혁신 리더십 지원
지속가능한 혁신추진체계 구축

④ 대학 성과의 투명한 공개

대학의 자율 성과관리 시스템을 통한 성과 분석 및 대국민 공개

V. 새로운 대학혁신 추진전략

1 [대학 외부] 지원 전략 혁신

① “선택과 집중” 전략 : 최정에 혁신 선도(flagship) 대학 집중 지원

- 모든 대학의 자율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개혁, 재정개혁,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 AI 등 디지털 대전환, 인구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의 대학-지역-산업간의 벽, 대학 내부 학과간 벽을 과감하게 허물고,
 - 담대한 혁신을 추진하려는 대학을 집중 지원하여 대학혁신의 성공 사례를 창출·확산하고, 전체 대학의 혁신을 촉진
-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별로 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고 역량이 있는 대학을 선정하여 전략적 투자·지원

② 범부처·지자체간 장벽없는 지원(RISE)

① 과감한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혁파

- **(맞춤형 특례)** 대학이 희망하는 혁신을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별 맞춤형 규제 특례제도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

참고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 (고등교육분야 지역별 맞춤형 규제 특례제도)

❖ 지역에서 핵심분야 인재양성에 필요한 규제 특례 사항을 발굴하여 신청
→ 지정 필요성·타당성 등 검토하여 지정. 최대 6년(4+2)간 규제특례 적용

※ ①실행계획 수립 시 규제특례 신청 → ②규제 소관 부처(부서)별 특례 타당성 등 검토 → ③규제특화 지역 분과위원회 심의·의결 → ④해당 대학에 규제 특례 적용

- **(규제개혁 우선적용)** 규제개혁 시범운영 후 단계적 확산 적용하려는 사안의 경우 글로벌대학을 우선 적용 대상에 포함

Ⅰ 규제혁신 우선 검토 과제(안) Ⅰ

- ① 대학의 자유로운 교육·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사 제도 자율화, 국립대학 구조개혁 촉진을 위한 규제특례 도입 등 추진
- ② 다양한 사회 및 교육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학생 제도 개선, 대학간 통·폐합 유형 다양화 등 추진
- ③ 대학의 자원 수입 구조를 다변화하여 대학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대학 시설과 재정 운용 관련 규제 완화 등 추진

② 범부처-지자체-산업계의 집중적 육성·지원

- 대학 재정수입 구조가 다변화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단순 재정 지원 외 대학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범부처-지자체-산업계가 전략적으로 지원

- (교육부 지원) 1교당 총 5년간 약 1,000억원 지원 추진

※ ('23~'24) 국립대는 국립대학 육성 사업, 공사립대는 지방(전문)대 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원
→ '25년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과 연계하여 지원방식 조정 검토

- 대학별·연차별 지원금은 학교 규모, 실행계획 등을 반영하여 조정 가능
- 학교 규모*가 평균 이하이거나 두 개 이상의 학교**가 통합을 전제로 신청한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규모 조정 가능

* 신입생·재학생 정원, 교비회계 규모, 교원 수 등 학교 규모는 종합적으로 판단

** 통합에 참여하는 대학 수, 학교별 역할, 학교 규모, 실행계획 등을 고려하여 대학별·연차별 지원액 조정 가능

- (범부처 투자) 교육부 등 중앙부처 대학재정지원 사업 선정 시 글로벌 대학에 대한 가점 부여 및 예산 인센티브 등 범부처 투자 확대 유도

※ 교육부-관계부처-지자체 협약(MOU)를 통해 안정적인 지원 보장

- (지자체 지원) RISE 체계 내에서 '인재양성-취·창업-지역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축을 위해 글로벌대학 집중 투자·지원 추진

| 지자체 지원 사항 예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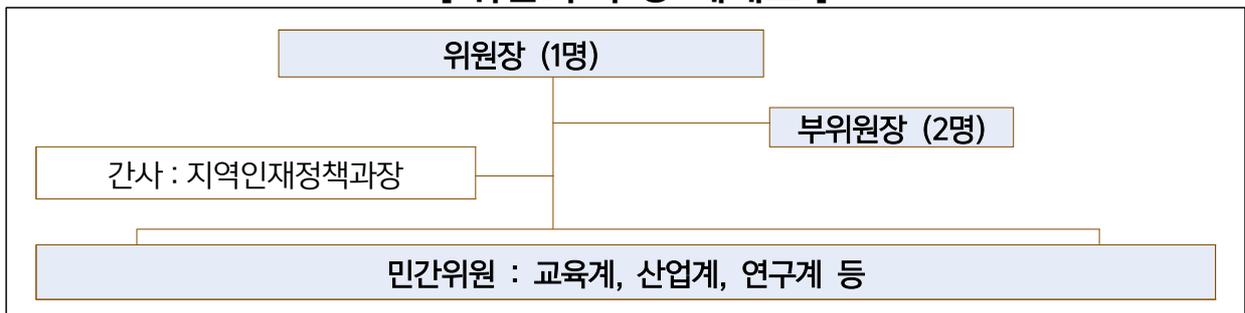
- (예1 : 대학 지원) 글로벌대학의 운영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 및 관련 조례 제정 등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체계 마련
- (예2 : 학생 지원) 글로벌대학 우수학생에 대한 학업 관련 제반 비용 지원 및 지역 내 기관 취업 시 취업 장려금 지원 등
- (예3 : 지역기관 지원) 글로벌대학을 적극 지원 및 연계하는 지역 내 기관 (기업·연구기관 등)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모색 및 제도화
- (예4 : 일자리 창출 지원) 글로벌대학에서 배출되는 우수 인재가 지역에 머물며 일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지원

- (산업계 협력) 산업계 우수 인력을 글로벌대학 교원으로 파견·활용, 산업계 맞춤형 교육과정 공동 개발 및 산학협력 공동연구 지원
 - 글로벌대학 맞춤형 진로·취업 컨설팅, 멘토링 등을 지원하고 MOU 체결을 통한 '글로벌대학 현장실습 등 제공-채용 연계' 추진

③ 수요자 관점의 대학혁신 지원 : 글로벌대학위원회 운영

- 정부 주도가 아닌 교육·산업·연구계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글로벌대학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수요자 관점의 대학 혁신의 방향 제시
- 기존 공급자 중심의 시각을 탈피하여 미래사회를 이끌 혁신적 대학 모델 제안 및 새로운 대학지원 패러다임 제시
- 계획 수립부터 지정·평가, 지원 및 성과점검 등 후속조치까지 글로벌대학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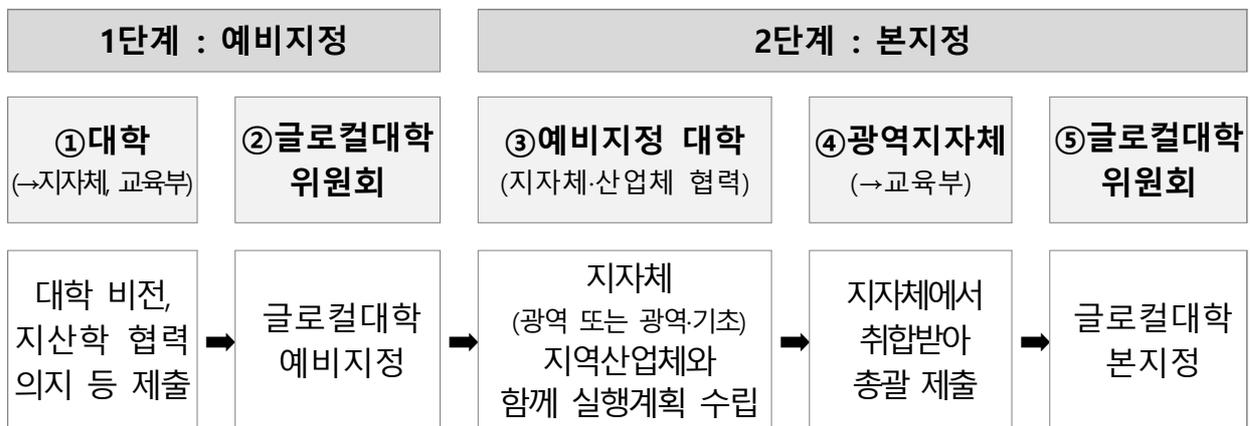
| 위원회 구성 체계도 |



4 스마트한 지정 및 성과관리 운영

- **(효율적인 지정체계)** 대학의 자원과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고, 실현가능한 혁신계획의 수립 및 실질적 이행이 담보될 수 있도록 선정 절차 운영
 - 대학이 보고서 작성에 매몰되지 않도록 핵심을 담아낸 혁신기획서 (최대 5쪽)를 기준으로 글로벌대학 1단계 지정(예비지정)
 - 1단계 지정(예비지정) 후 대학-지자체(광역시 또는 광역·기초)-지역산업체 등이 공동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 교육부는 2단계(본지정) 평가 전까지 외부 전문가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1단계 지정 대학의 실행계획 수립을 지원

Ⅰ [참고] 글로벌대학 선정 절차 Ⅰ



- **(디지털 기반의 성과관리)** 공공데이터포털 내 개방데이터(취업 및 거주 데이터 등)와의 연계·활용을 통해 글로벌대학 성과분석 실시
 -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글로벌대학의 성과 분석 및 모니터링, 평가, 환류하는 등 데이터 기반의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 * (예) 건강보험 정보와 연계하여 글로벌대학 졸업생의 지역정주율 확인
 ※ 원활한 정보 연계·활용을 위해 필요시 정보수집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엄정한 성과관리)** 대학 혁신 추진상황 모니터링 등 동행평가를 통해 실행계획 미이행 또는 성과 미흡 시 컨설팅 및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개선이 어려운 경우 글로벌대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중지 등 방안 검토

① 지역혁신을 위한 산학협력의 허브로 역할

- 대학이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의 산업과 사회의 수요를 고려한 대학의 혁신 방향 설정
 - 지역의 산업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학사구조 및 교육과정 융합 및 재구조화 등 교육혁신 추진
 - 대학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혁신적인 지식을 생산하고 창출하는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문제해결 방식의 프로젝트 수업 등 교수학습 다변화
 - 대학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산업이 필요로 하는 신기술 개발 연구 및 지역 문제해결을 위한 지·산·학 연계 등 협력 강화
- 대학의 우수 인재가 지역에 머물며 지역 산업의 우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체 등 지역 기관과의 연계·협력 방안 마련

② 대학 안-밖, 대학 내부의 경계를 허무는 유연한 대학 운영

- 대학이 지역 산업·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외부의 요구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대학 거버넌스의 개방 추진
 - 대학 거버넌스에 지자체 및 산업계 등 외부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
 - 다변화된 사회수요에 대응하고 학생의 다양한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유연한 학사 운영, 혁신을 주도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내부 체제 개편
 - JA(Joint Appointment) 교원*, 우수 교원 임용을 위한 교원 승진·인센티브 재설계, 무(無) 학과제도·융합전공·자기주도설계 전공(concentration), 기초교양 학부-전공탐색기간, 복수전공 활성화 등
- * (JA교원제도) 학과-학과, 대학-대학, 대학-산업체 공동 소속으로 임용하는 교원

③ 과감한 대도약(Quantum Leap)을 위한 혁신 추진 체계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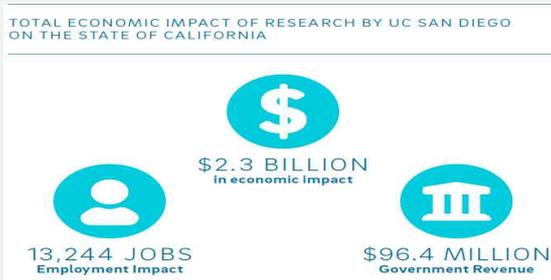
- 기존 다른 대학이 도전하지 않은 과감한 도전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지닌 선도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한 중장기 혁신계획 마련
- 중장기 혁신계획의 추진 및 실행 관련 의사결정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혁신 실행체계 마련
 - ※ (예시) 학칙으로 대학총장이 위원장인 (가칭)글로벌대학추진위원회를 두고 글로벌대학 관련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운영
- 5년 지원 이후에도 대학이 스스로 지역의 산업·사회와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혁신과 성장을 추진할 수 있는 중장기전략 수립
 - ※ (예시) 산학연계 활동 및 창업 확산, 국내외 민간 지원재단 등과 연계, 자체기금 확충 등 대학의 지속가능한 수익창출 구조 마련

④ 대학의 운영 성과 및 지역사회 기여도의 투명한 공개

- 대학은 체계적인 성과관리와 투명한 성과공개를 위한 자율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 또한, 대학의 지역 산업·사회 협력 결과에 따른 지역기여도 및 영향력(Impact)의 분석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 검토

Ⅰ 지역기여도 및 영향력(Impact) 분석 Ⅰ

- 산업·경제·문화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대학의 기여도와 영향력을 계량적인 지표**를 이용하여 산출·분석하는 보고서
 - ※ (예) 지역 정주 인재 수, 지역 내 고용 정도, 지역산업에 미친 영향력, 지역에 창출한 GRDP, 소비규모, 지적재산권 수입액 등
- 해외대학은 이미 **대학의 지역사회·산업에 대한 기여도와 영향력을 구체적인 수치로 환산하여 분석·공개**, 이를 통해 대학에 대한 대외 인식 제고



출처 :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Economic, Research, and Community Impacts(Fiscal year 2018)



출처 : Economic and Community Impacts of the University of Missouri System (January 2022)

[참고] 해외 대학의 대학-지역-산업 간 벽 허물기 사례

① 대학과 산업간 벽 허물기로 대학의 학사구조와 교수학습 전면 개편

- (예1) 지역 산업 수요 맞춤형 학과 구조 개편 및 학위 프로그램 운영, 산업 현장 전문가를 교원으로 적극 활용하여 현장 적용이 가능한 교육 제공
※ (해외 사례) 독일 미텔슈탄트대
- (예2) 대학이 지역 기업별 1대1 연구실 및 연구원(교수·학생) 제공, 기업 연구개발 및 문제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중심 교수학습(PBL)으로 전면 개편
※ (해외 사례) 미국 올린공과대

② 기존 산업의 벽을 허무는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창업·창직 대학

- (예) 모든 학생에게 전 교육과정에서 창업과 기업가정신을 교육, 대학 내 연구개발재단과 기술연구소는 창업 아이디어만 있으면 연구, 자금조달, 마케팅, 계약관리 등 전반에 관한 것을 지원, 교수진을 실제 경영인(CEO)으로 구성
※ (해외 사례) 이스라엘 테크니온공과대, 텔아비브대학, 미국 뱁슨칼리지

③ 대학 간, 지역 연구기관 간 벽 허물기로 대학 교육·연구 기능 혁신

- (예1) 시도내 대학 간 통합하여 캠퍼스 간 자원 공유, 유사 학과 통합 및 중복 업무 재배치, 캠퍼스별 기능 특화
※ (해외 사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시스템
- (예2) 대학과 지역 연구기관 간 통합 또는 연계를 통해 대학 연구 기능 강화, 연구기관의 전문가를 교수로 활용
※ (해외 사례) 프랑스 그로노블 알프스 대학, 이스라엘 텔아비브

④ 학문·학과 간의 벽 허물기로 학생 중심의 전공 체계로 전면 개편

- **(예1)** 학부생 전원을 무(無)학과 단일계열로 선발하고 학생은 성적에 대한 부담 없이 자신의 학업 적성을 탐색, 학생(수요자) 중심의 전공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학과별 정원 폐지, 학과에서 설계한 교육과정이 아닌 학생이 관심 있는 분야에 맞추어 스스로 교육과정 설계
※ (해외 사례) 미국 브라운대
- **(예2)** 여러 전공·학문의 교수가 모여 하나의 강의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모든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하고,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팀 프로젝트 형식으로 융합교육 진행
※ (해외 사례) 미국 올린 공과대

⑤ 국내-국외 벽 허물기로 지역 특화 산업의 외국인 정주 인력양성에 특화

- **(예1)**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특화산업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국어, 전문용어 훈련, 상호문화적응 훈련 등 외국인 유학생-지역특화산업 취업 연계
※ (해외 사례) 독일 미텔슈탈트대
- **(예2)** 다국가에서 국제학생을 전체 학생의 50% 이상으로 유치하고, 전 과목을 한국어·영어 이중 수업 진행, 전학생 100% 해외경험 제공
※ (해외 사례) 일본 리츠메이칸 아시아태평양대

⑥ 학령인구-非학령인구 벽 허물기로 대학 교육 수요자의 범주 확대

- **(예1)** 지역기업과 연계하여 재직자의 재교육(upskill 또는 reskill)을 위한 학부 및 교육과정 신설·운영
※ (해외 사례) 미국 애리조나대
- **(예2)** 전통적인 학령인구가 아닌 근로자 학생, 지역주민, 은퇴자(50~60대)를 주 학생으로 입학시켜 평생교육 중심으로 전환
※ (해외 사례) 미국 서던 뉴햄프셔대

VI. 2023년 글로벌대학 지정(안)

- ▶ '23년 비수도권 지역 총 10개 내외 글로벌대학 지정 예정 → '26년까지 단계적으로 비수도권 지역 약 30개 글로벌대학 지정 목표
- ※ '23년은 10개 내외, '24년 10개 내외, '25~'26년 각 5개 내외 지정 목표

1 추진 개요

- **(목적)** 담대한 비전을 가지고 스스로 전면 혁신할 의지와 역량을 갖춘 대학을 글로벌대학으로 지정, 대학의 대도약(Quantum Leap)을 지원
 - 대학의 내·외부 벽을 허물고, 지자체, 지역 산업계 등과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대학-지역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지원
 -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등을 계기로, 과감한 혁신을 추진하는 지역대학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 및 지원 확대
 - ※ 국립대학 육성 사업 : ('22) 3,064억(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분 포함) → ('23) 4,580억 지방대 활성화 사업(1,900억) 및 지방전문대 활성화 사업(600억) 신설
- **(근거)** 「고등교육법」 제7조 및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제17조
- **(대상)** 2023년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일반재정지원대학 또는 국립대학
 - ※ 비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
 - ※ '25년 글로벌대학 지정부터는 고등교육기관평가인증 미인증대학(불인증·인증유예·미신청·인증정지·인증취소), 사학진흥재단 진단 결과 경영위기대학 지정 대학은 참여 제한 예정
 - 「고등교육법」 상 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대상이며, 특별법상 과학기술원, 사이버대, 각종 대학은 제외
 - 분교 설립인가 받은 곳은 본교와 별도로 분교 소재지에 따라 신청 가능, 설립인가 받지 않은 캠퍼스는 본교와 통합하여 본교 소재지에 따라 신청

- 단일 대학이 '단독'으로 과감한 대도약 추진 외 2개 이상 대학·기관이 지원기간 중 통합을 전제로 과감한 혁신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예) 통합을 희망하는 A대학과 B대학이 지역·캠퍼스별 기능 특화 추진

- 통합 추진 대학은 글로벌대학 협약 체결 후 1년 이내에 교육부로 통합 신청서 제출 필요

※ 통합 신청서 제출과 관련하여 고려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글로벌대학위원회 심의에 의해 제출기한 조정 가능

- 통합 추진 대학은 글로벌대학 지정 신청서를 공동으로 작성할 수 있음

□ **(지정규모)** '23년 10개 내외

※ 대학의 혁신 준비도 등에 따라 최종 지정대학수 변동 가능

□ **(지정방식)** 1단계(예비지정) 및 2단계(본지정) 평가를 거쳐 글로벌대학 위원회에서 최종 지정대학 결정 및 대학별 지원액 산정

□ **(지원기간)** 5년('23~'27)

□ **(지원액)** 교당 5년간 약 1,000억 지원 추진(1차년도 교당 약 50억원, 2차년도 교당 약 100억 지원 예정)

- 대학은 본지정 실행계획 수립 시 연차별 지원액 조정·신청 가능, 글로벌대학위는 대학 규모, 실행계획 등을 고려하여 지원액 산정

※ 통합 추진대학은 통합에 참여하는 대학 수, 학교별 역할, 학교 규모, 실행계획 등을 고려하여 대학별·연차별 지원액 조정 가능

□ **(지원방식)** 글로벌대학 지정대학에 대해 국립대는 국립대 육성 사업, 사립대(공립대 포함)는 지방(전문)대 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원

- 각 사업은 글로벌 대학 지정 결과를 반영하여 대학별 지원액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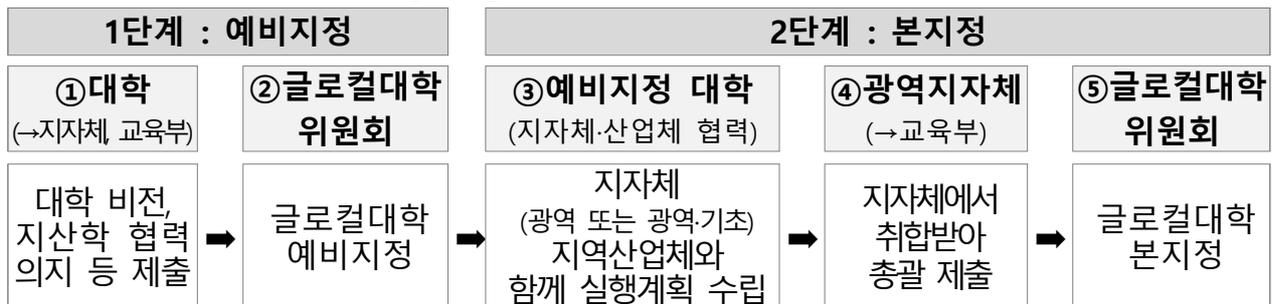
2 평가위원회 구성 및 지정 절차

1 평가위원회 구성

- **(원칙)** 평가위원회 위원 명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1단계(예비 지정)과 2단계(본지정)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 **(구성)** 각 평가위원회는 교육·산업·연구계, 전문가 등 관련 분야 대표성을 갖춘 자로 구성
- **(상피)** 평가위원회 구성에 있어, 최종 출신학교, 현 소속기관에 대한 상피제를 적용하여 평가 공정성 확보
 - 심사 공정성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2인 이상의 평가위원이 특정 평가 위원 배제 요청 시 제외 검토

2 지정 절차

Ⅰ [참고] 글로벌대학 지정 절차 Ⅰ



① 1단계(예비지정) 신청서 제출 : 혁신기획서

- 대학의 혁신비전과 혁신과제를 핵심적으로 제시한 기획서(최대 5쪽) 제출
 - ①산학협력 허브 역할, ②대학 내외부 경계 허물기, ③과감한 대도약 혁신 추진 체계 운영, ④성과관리 시스템 및 공개 방안 포함
 - ※ 표지와 목차 등을 제외한 본문부터 페이지 수 산정, 분량을 초과하여 작성한 자료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가능
 - RISE 비시범지역 소재 대학은 지자체 협조를 통해 별지 1쪽(분량에 미포함) 이내로 '대학-지자체-산업계간 실행체계 구축' 항목 작성
 - ※ RISE 시범지역 소재 대학의 경우 별지 자료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해당 항목에 만점(10점) 부여 (☞ '예비지정 평가 기준(안)' 참조)

- 대학의 혁신 방향은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지방(전문)대 활성화 사업, 국립대 육성 사업 등의 혁신 및 특화 방향과 모순되어서는 안 됨
- 예비지정 신청서는 교육부 및 대학이 소재한 광역지자체에 동시 제출
- 예비지정 대학의 혁신기획서는 예비지정 결과 발표 후 온라인 등을 통해 대국민 공개 추진 예정

※ 미지정 대학의 경우도 공개에 동의한 경우 혁신기획서 공개 예정

② 예비지정

- ‘글로벌대학 예비지정 평가위원회’에서 서면·대면 심사
 - ※ 평가위원회 판단에 따라 필요시 대면평가 진행 또는 추가 자료 제출 요청
- 평가위원은 평가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 평가점수가 평균 70점 이상 대학 중 순위에 따라 1.5배수 내외 예비지정 대학 지정
 - ※ 단, 총점이 70점 미만이거나 ‘혁신성’ 영역 점수가 영역 총점(60점) 50% 미만 시 선정 제외

Ⅰ 1단계(예비지정) 평가 기준(안) Ⅰ

영역	평가 주안점
혁신성 (6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의 비전과 목표는 기존 대학 운영의 틀을 넘어 과감하고 도전적인가? • 제시한 혁신 계획에 따르면, 해당 대학이 한국의 대학혁신을 대표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이 될 수 있을 것인가? • 산학협력 허브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안이 제시되었는가? • 대학 안-밖, 대학 내부(학과, 교수)의 경계를 허무는 시도가 혁신적인가? • 혁신을 위한 걸림돌(저해요소)를 분석하고, 걸림돌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규제혁신 등)이 제시되었는가?
성과관리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혁신 추진체계를 제시하였는가? • 혁신계획의 실행에 따른 자율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계획은 적절한가?
지역적 특성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대학이 지역 혁신을 위한 산학협력, 창업 등을 위한 허브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대학, 지자체, 산업계의 역할은 명확하며 실행 가능한가?(10점) • 대학, 지자체, 산업계가 연계·협력하기 위한 실행체계가 구축되어 있는가?(10점)

- (RISE 시범지역 소재 대학) 지역적 특성 중 '대학, 지자체, 산업계가 연계·협력하기 위한 실행체계가 구축되어 있는가?(10점)' 항목에 별도 평가 없이 10점 부여
→ 동 항목 관련 자료 제출 불요
- (RISE 비시범지역 소재 대학) 동 항목에 대하여 평가를 통해 점수를 부여
→ 본문 분량(5쪽) 외에 별지 1쪽 이내 작성하되, 해당 항목은 지자체 협조를 통해 지역 내 RISE 체계 추진방향 및 계획 기술

③ 2단계(본지정) 신청서 수립 : 실행계획서

- (예비지정 대학) 대학-지자체(광역 또는 광역·기초)-지역산업체가 공동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 최종 실행계획은 광역지자체로 제출
 - 지자체 발전전략, 지역산업체 성장계획과 연계하여 지자체·지역산업의 수요를 고려한 글로컬대학 연차별 실행계획 및 목표 설정
 - 비전 및 실행계획 실현을 위해 글로컬대학, 지자체, 지역산업체간 역할·기능 정립, 각각의 인적·물적 자원 연계·활용 방안 논의
 - 지자체는 글로컬대학 재정지원 및 관련 산업 투자·육성, 인재양성·연구개발·산학협력 등 글로컬대학 성과를 지역에서 활용하기 위한 행정적·제도적 지원 의지 등을 포함
 - 과감한 혁신 방향 및 실행계획에 대한 대학 구성원 동의·설득 필요
※ 혁신 방향 및 실행계획에 대한 대학 구성원 의견수렴 결과 제출 필요
- (교육부) 예비지정 대학이 실행계획 수립 시 전문가 컨설팅 등 지원
 - 고등교육 전문가, 경제·산업계 인사 등 관련 분야별로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사람을 위주로 컨설팅단 구성
 - 대학당 2~3인으로 구성된 전담 컨설팅팀을 통해 실행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재정 투자계획 등을 전반적으로 자문·권고

④ 2단계(본지정) 신청서 제출 : 광역지자체에서 취합·제출

- 광역지자체는 예비지정 대학의 실행계획을 총괄 취합하여 제출

⑤ 본지정

- '글로벌대학 본지정 평가위원회'에서 서면·대면 심사
 - ※ 필요시 최종 본지정을 위한 현장방문 또는 추가 자료제출 요구 가능
- 평가위원의 평가 점수 평균에 따라 글로벌대학 본지정 순위 도출
- '글로벌대학위원회'에서 결과를 심의하여 10개 내외 대학 본지정
 - ※ 글로벌대학위원회 심의에 따라 본지정 대학 수는 변동 가능
- 본지정 대학은 「지방대육성법」상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최종 지정
- 대학의 1·2단계 평가 제출자료에서 오류 또는 허위가 확인될 경우, 글로벌대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취소 및 환수 등 조치 가능

■ 본지정 시 평가 기준(안) ■

평가 요소		평가 주안점
대학 실행 계획 (70점)	계획의 적절성 (5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대학 실행계획은 예비지정 때 제시한 과감하고 도전적인 비전 및 목표에 근거하여 수립하였는가? • 글로벌대학의 비전 및 목표, 혁신전략은 지역발전 전략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가? • 글로벌대학의 혁신전략 및 실행계획은 대학 구성원 간 합의와 소통의 결과에 근거하여 수립되었는가? • 글로벌대학의 연차별 실행계획 및 투자계획은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 글로벌대학 비전 및 목표 실행에 필요한 규제개혁 사항이 적절하게 제시되었는가?
	성과 관리 적절성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대학의 연차별 성과목표와 계획은 도전적이고 달성가능한가? • 글로벌대학으로의 성장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성과 관리체제의 운영계획은 적절한가? • 글로벌대학 추진을 통한 지역사회 차원의 성과목표(지역사회 기여도)가 도전적이고 달성가능한가?
지자체의 지원 및 투자 계획 (3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투자 규모 및 계획은 적절한가? • 글로벌대학과 관련한 지역 산업을 육성할 지자체의 계획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가? • 글로벌대학의 인재양성, 연구개발, 산학협력의 성과를 지역에서 활용하기 위한 행정적·제도적 지원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VII. 성과관리

□ 성과목표 설정 및 성과관리

- **(목표 설정)** 대학이 비전 및 지자체 발전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감한 혁신과 변화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자율 목표를 제안
 - 대학이 제안한 자율 목표는 글로벌대학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확정

❖ 성과목표 예시

- 세계적 브랜드가치 보유 : 유일무이(Only One), 선도자(First Mover) 역할
- 산학협력 분야 : 기술이전, 산업체(지역연계) 공동연구를 통한 지식재산권 창출 등 산학협력 분야의 괄목할만한 성과
- 세계적 수준의 대학 : QS, THE 등 각종 세계대학 평가 결과 활용

- **(성과 관리)**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 변화하는 단계적인 모습(학과·구조 개편 등)을 기준으로 연차별 실행계획과 이행 목표치 설정
 - 실행계획 및 목표 달성 여부 등 대학 자체 성과평가 후 글로벌 대학위원회에 보고·심의, 필요시 전문가 평가 및 환류
 - 3년차, 5년차에 전문기관 등을 활용하여 글로벌대학 실행계획 이행 및 목표치 달성 등 중간 모니터링 등 동행(同行)평가 실시
 - 모니터링 결과, 실행계획 미이행 또는 성과 미흡 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협약 해지 및 지원 중지 가능, 필요시 사업비 환수 조치 검토
 - ※ 실행계획 미이행 또는 성과 미흡에 대한 대학 소명서를 제출받아 협약 해지 등 검토
- **(영향력 평가)** 대학의 지역 산업·사회 협력 결과에 따른 영향력 (Impact)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대학별 홈페이지에 결과 공개
 - ※ (예) 지역정주 인재 수, 지역 고용 정도, 지역산업에 미친 영향력(산학협력, 연구개발), 지역에 창출한 GRDP, 소비규모, 지방세 납부액 등
 - ※ Impact 평가 핵심 지표 및 분석 방식, 공개 방법 등은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안내

□ 글로벌대학의 이행 담보 방안 마련

- **(대도약 이행 협약)** 글로벌대학과 교육부, 지자체, 산업체 간 각각 이행해야 할 역할과 과제를 제시한 '대도약 이행 협약' 체결

❖ 대도약 이행 협약

- 글로벌대학, 교육부, 지자체, 산업체 간 **대도약 이행**을 위해 **사전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으로, 5년간 각각 이행해야 할 **역할과 과제**를 제시
- 대학은 5년간 **연도별 목표치**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부와 지자체의 규제 완화와 범부처·지자체·산업체 지원 사항** 등 **역할**을 명시

- **(사후 변경 발생)** 사업 도중 대학총장 변경*이 생길 시 글로벌대학 이행 동의서 제출, 미이행 시 자격 중단 및 지원 중지 등 검토

* 해당년도 지원금은 후보자 또는 후임자의 이행 동의서 제출 후 지급 추진

- 특별한 사유로 **실행계획 및 성과목표 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교육부에 승인 요청** 및 **글로벌대학위원회 심의** 필요
- 글로벌대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 승인**이 된 경우, 컨설팅단을 통해 수정된 실행계획의 타당성, 성과목표 적절성 등 검토·변경

□ 「가칭」글로벌대학연합체' 구성·운영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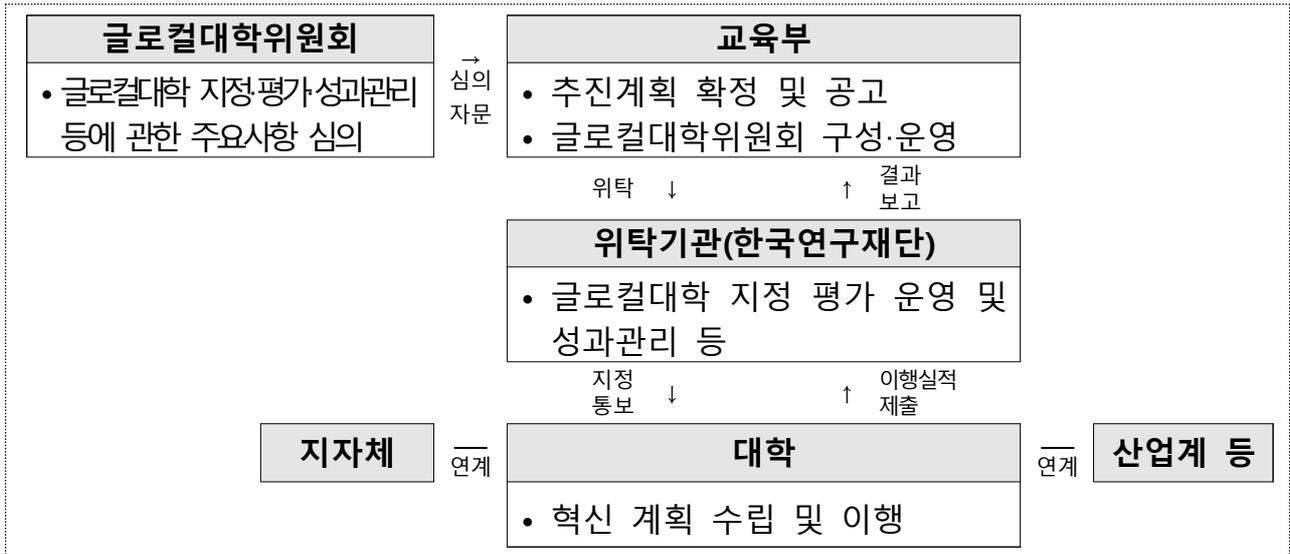
- 지역의 선도적인 글로벌대학 간 「가칭」글로벌대학연합'을 구성
- 연합체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글로벌대학에 대한 기본 정보와 대학별 지역기여도 및 영향력 분석 결과를 게재
- 글로벌대학 모델 개발 및 성과 분석을 위한 연구분석 추진, 우수 사례 발굴 및 공유를 위한 정기적으로 워크숍·심포지엄 개최
- 성과가 지속 미흡한 글로벌대학이 있는 경우 연합체 동의를 거쳐 글로벌대학위원회에 탈퇴 건의 시 심의 후 자격중지 검토

❖ 「참고」 미국대학협회(Association of American Universities, AAU)

- 미국의 선도적인 대학들로 구성, 협회 가입은 협회의 초대에 의해서만 가능
- 협회는 회원대학 간 순위를 매기고, 회원 찬성 시 순위 낮은 대학 퇴출 가능
-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포럼 등 개최

VIII. 추진체계 및 기타 사항

□ 추진체계



- (글로벌대학위원회) 글로벌대학 지정과 관련한 주요사항 심의, 최종 지정 대학 결정 및 대학별 지원액 산정 등
※ 최종 지정대학 및 대학별 지원 산정액은 사업별 사업관리위원회에 보고
- (교육부) 글로벌대학30 추진방안 수립·공고 등 관련 사항 총괄, 글로벌대학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 (한국연구재단) 글로벌대학 지정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성과관리 등
- (대학) 지자체, 산업체 등과 연계하여 지역 혁신 모델을 제시하고,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 성과 공유·확산 등 수행

□ 지원금 교부 및 집행 등

- 글로벌대학 지정에 따른 지원금은 '국립대 육성 사업(국립대)', '지방(전문)대 활성화 사업(공·사립대)' 사업비에 포함하여 교부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과 관련된 사항은 각 사업에서 정한 바에 따름
- 글로벌대학 지정 평가 및 성과관리 등과 관련된 사항은 각 사업*에서 운용하는 사업운영관리비를 활용할 수 있음

* 국립대 육성 사업, 지방대 활성화 사업, 지방전문대 활성화 사업

Ⅸ. 향후 추진일정(안)

- 글로벌대학30 추진방안(확정안) 발표 및 공고 : '23.4.18(화)
- 예비지정 신청서(혁신기획서) 접수 : ~'23.5.31(수)
- 예비지정 결과 발표 : '23.6월 중
 - ※ 예비지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검토 : '23.6월 중
- 본지정 실행계획서 접수 : ~9월 초
- 본지정 결과 발표 : '23.9월 말
- 본지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검토 : ~'23.10월 초
- 본지정 결과 확정 발표 : '23.10월 중
 - ※ 2단계 평가(본지정)와 관련된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국가교육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의견 수렴('23.1.10)
- 국가균형위원회 지방대학특위 의견 수렴('23.1.18)
- 지역대학 총장 간담회('23.1.18)
- 글로벌대학 육성방향 전문가 간담회(1차 '23.1.19, 2차 '23.1.26)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총회('23.1.31)
- 국가교육위원회 지자체 현장소통 간담회('23.2.2)
-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 간담회('23.2.3), 지역대학 총장 간담회('23.2.10)
- 지방자치단체 찾아가는 설명회('23.2.13~16)
- 제주지역 지자체-대학 간담회('23.2.14), 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23.2.15)
- 국가인재양성전략 포럼('23.2.20)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방대학 특위 의견수렴('23.2.27)
- 비수도권 일반대 기획처장 간담회('23.2.28)
- 국가중심 국·공립대학 총장협의회('23.3.3)
- 비수도권 전문대 기획처장 간담회('23.3.7)
- 글로벌대학 30 추진방안(시안) 발표('23.3.16.)
- 권역별 공청회 개최('23.3.16.세종, 3.20.대구·부산, 3.22.전북)
- 교육부 홈페이지 및 공문을 통한 현장 의견수렴('23.3.15.~3.28.)
- 국공립대총장협의회 의견수렴('23.3.23)
- 전국대학교부총장협의회('23.4.6), 사립대학총장협의회('23.4.7) 의견수렴

1 프랑스 그르노블 알프스 대학 연합 (대학-연구기관 간 통합)

- 프랑스의 첨단기술산업이 발달해 있는 그르노블(Grenoble)시에 국립연구소와 국립대학 및 일반 학교 간 연합 형성
 - ※ 그르노블 이공계열 국립연구소(Grenoble INP), 그르노블 정치학교, 그르노블 국립건축학교와 같은 그랑제꼴과 국립대학인 그르노블 알프스 대학 간 연합 형성
- 2016년 우수대학인증사업(IdEx)에 선정, 2020년 상하이교통대학에서 실시한 국제대학 순위에서 세계 99위 기록

2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 (대학-연구기관 간 통합)

- 텔아비브 법과대학 + 자연과학연구소 + 유대인 연구소 3개 교육 연구기관이 합치면서 1956년 개교 → 대학 내 연구청을 통한 행정지원
 - ※ QS 교수 1인당 인용횟수 세계 21위, 이스라엘 1위
- 학문 간의 경계를 허물어 융합연구대학의 선두주자 역할
 - 의학, 철학, 윤리, 과학, 예술 등의 경계를 설정하지 않고 인체와 환경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간주하는 르네상스 정신으로 연구 주도

3 독일 미텔슈탄트대 (지역 강소기업 맞춤형 인재양성)

- 독일 강소지역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위한 훈련과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운영하는데 대학의 핵심역량을 집중
-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혁신적인 학위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경제·사회와 연계되는 새로운 학습 과정을 제시
 - 현장 전문가를 교육에 참여시켜 현장성 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지역 기업이나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프로젝트에 학생을 참여

④ 미국 올린공과대 (기업과 협업하여 현장 중심 연구)

- 모든 수업이 프로젝트 중심, 실험 위주 현장 중심 교육 실시
 - 학과는 나뉘어 있지 않고, 전자·컴퓨터 공학, 기계공학, 바이오·재료 공학 전공으로만 나뉘며, 그 안에서 융합교육 진행
- 학교와 기업이 협업하여, 학생 4~5명이 캡스톤 디자인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문제 해결을 찾는 현장 중심 연구를 실시
 - 학생들이 실제 기업이 당면한 문제를 직접 발주받아 그간 배운 지식을 기반으로 직접 해결하는 스코프(SCOPE)라는 컨설팅 프로젝트를 거침

⑤ 일본 리츠메이칸 아시아태평양대 (글로벌 맞춤형 교육 실시)

- '학생 50개 이상의 나라와 지역 출신 학생들을 입학시키며 학생 50%를 국제학생들로, 교수의 50%를 외국인으로 채용'을 목표로 삼음
 - 대부분의 과목은 일본어와 영어 2개 국어로 수업을 진행
- '아시아태평양학부'는 국제적 시점에서 지역과제를 발견하고 환경, 관광, 문화 그리고 국제관계 등 다양한 분야를 섞어 만든 새로운 학문
 - '국제경영학부'는 글로벌 니치 톱(GNT; Global Niche Top)에 대해 연구하고 일본과 세계를 잇는 새로운 경영학을 목표
- 인구 12만 명의 소도시인 벳푸가 글로벌대학으로 인해 국제도시로 변모

⑥ 독일 미텔슈탄트대 (외국인 정주인력 양성을 목표로 프로그램 운영)

- 해외 학생들을 위해 설계된 1년 과정의 실용 교육 프로그램 PSP(Pre-Studies Program) Professional Program 운영
 - 해외 학생들이 PSP 전문과정을 통해 직업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독일언어, 전문 용어 훈련, 상호 문화적응 훈련, 구직훈련, 현장 학습 및 현장방문 교육 등 실시

7 미국 애리조나대 (기업과 연계하여 재직자 등 대상 교육 제공)

- 스타벅스와 함께 대학 학위 프로그램 (The Starbucks College Achievement Plan ; SCAP)을 운영
 - 주당 최소 20시간 근무하는 스타벅스 직원은 애리조나 주립대 온라인 학사과정을 100% 장학금 받고 다닐 수 있는 제도
- 우버와 협약을 맺어 운전자 및 가족 대상 ASU 온라인 학비 지원
 - ASU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기업 회사의 재직자가 일과 학업을 같이 할 수 있는 가능성 제공

8 미국 서던 뉴햄프셔대 (근로자학생, 성인학습자 등 대상 교육 활성화)

- 소규모 지방사립대학인 서던 뉴햄프셔 대학은 낮은 대학 평판 및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평생교육대학과 온라인 교육을 통해 극복
- 학령인구 등 전통적인 학생이 아닌 지역사회 근로자 학생, 성인 학습자, 기혼학습자 등과 같은 집단의 대학 입학에 활성화함
 - ※ 정규 등록 학생은 약 3천명인 반면 온라인 등록 학생은 약 8만명('18년 기준)

9 이스라엘 테크니온공과대 (창업 전 단계를 대학에서 지원)

- 모든 학생에게, 전 교육과정에서 창업과 기업가정신을 가르치고, 학생이나 연구원은 지도교수의 창업 과정을 직접 보고 듣고 체득
- 테크니온공대 창업생태계는 연구개발재단과 기술연구소인 T-3 중심
 - 연구개발재단은 적절한 아이디어와 사업화 구상만 있으면 필요한 모든 것(정보 수집, 자금조달, 캠퍼스 마케팅, 허가기관 및 사업체와의 계약 관리, 예산관리 등)을 지원
 - T-3는 테크니온공대의 기술이전회사이며 일종의 창업보육기관으로, 독자적인 기업활동이 가능한 단계까지 기업을 육성해 배출하는 역할

10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 (창업 전 단계를 대학에서 지원)

- 기술이전을 맡고 있는 대학 기술이전회사인 라못과 그 자회사인 타워벤처는 대학 내 130개 연구기관과 교수, 학생들이 개발한 새로운 기술을 특허 등록하고 이를 상용화하는 역할
 - ※ 2,400개 특허를 등록하는 등 연간 평균 75개의 새로운 특허 출원을 하고, 60개 이상의 신생기업과 200개 이상의 라이선스 및 옵션계약 체결
- 라못은 유망한 혁신에 대한 투자를 개시, 관리 및 장려
 - 대학에서 나온 연구결과가 사장되지 않도록 최대한 활용법 모색
- 자회사인 타워벤처는 학생, 연구원, 교수 등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회사설립이나 투자유치 등을 지원하는 회사
 - 아이디어가 새로운 창업을 위한 새싹으로 성장하도록 전문가 멘토링과 투자자 매칭 지원

11 미국 뱍스 칼리지 (기업가정신 학부전공 운영)

- 세계 최초 기업가정신 학부전공을 독립 운영, 창업교육에 중점
 - ※ 졸업생 창업 비율 17% (하버드 7%, 스탠퍼드 13% 콜롬비아 5%)
 - 교수진은 실제 경영인(CEO)으로 구성
 - ※ 미래교육연구소에 따르면 미국 대학 졸업생 연봉 랭킹에서 예일, 듀크, UC 버클리를 제치고 뱍스 칼리지가 12위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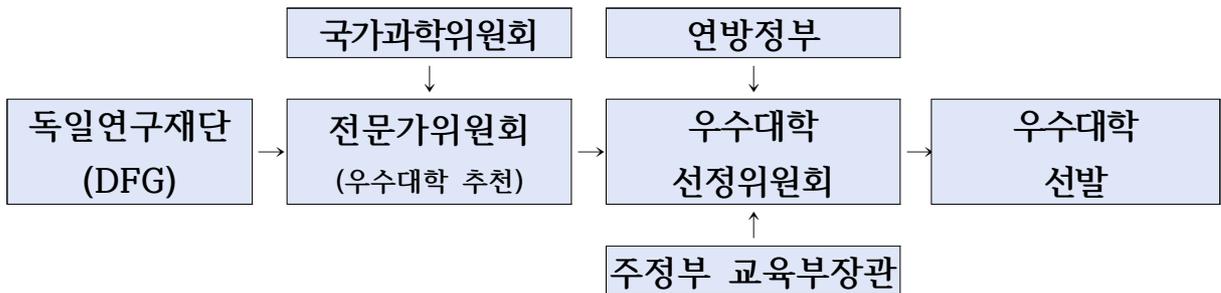
12 핀란드 알토대 (창업 중심으로 교과과정, 프로그램 운영)

- 국립대인 헬싱키공대 + 헬싱키예술디자인대 + 헬싱키경제대를 통합해 설립한 대학으로, 핀란드 스타트업 창업자 절반 이상이 알토대학 재학생, 졸업생
- 40여개의 학과가 있으나, 전공에 상관없이 수업은 자유롭게 들을 수 있으며, 수업은 대부분 실습과 팀 프로젝트 위주로 진행
 - 3~4회 이론 강의 이후부터 5~10명씩 팀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
 - 알토대 학생들의 40%가 교과 과정에서의 기획물로 스타트업 창업

1 독일, 우수대학지원전략(Exzellenzstrategie)

- (목적) 대학의 특화 분야를 강화하며 독일의 국제 연구 위상을 높이는 등 선도적인 연구 환경을 지속 지원하기 위해 **우수대학 11개 선정**
 - ※ 우수대학집단(Exzellenzduster): 개별 대학 혹은 동일한 공모사업을 신청한 대학연합, 대학·연구소 연합 등
 - ※ 우수대학(Exzellenzuniversitäten): 우수대학집단 중 일부 대학만 지원 가능하며 그 중 11개 선발

○ **선발방식**



- (국가과학위원회) 각 연구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저명한 200명 이상의 전문가에 의한 대학의 연구프로젝트 평가
- (전문가위원회) 국가과학위원회와 독일연구재단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로 구성되어 우수대학 목록 추천
- (우수대학선정위원회) 연방정부·주정부 교육부 장관, 전문가위원회로 구성되어 표결에 따라서 우수대학 선발
- (지원내용) '19.1.1부터 연간 3억 8,500만 유로*(약 5,300억원) 총 7년 지원 및 재평가 후 7년 연장(34개 대학, 57개 사업 선정)
 - * 전체 우수대학집단 지원액이며 연방정부 75%, 대학소재 주정부 25% 부담
- 우수대학에게는 재정지원 외에도 연 1,000만 유로(약 137억원) 추가 지원

○ **효과**

- (성과) 우수대학의 QS 순위 상승*(TUM, LMU, Bonn) 및 비우수대학에 연구 실적 확산으로 독일 고등교육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향상
 - *'18~'23 사이 우수대학 순위 변화 TUM: 64→49, LMU: 66→59, 본(Bonn)대학: 239→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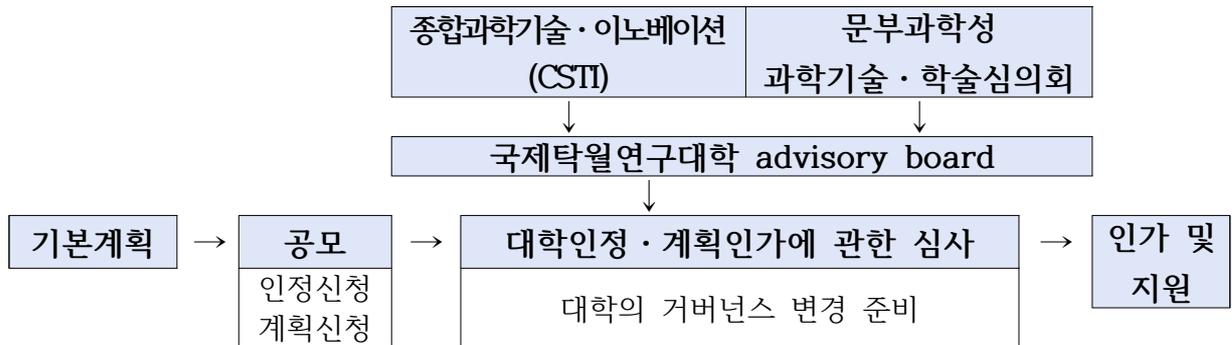
② 일본, 국제탁월연구대학 지원

○ 기본 개요

- 개혁 의지(비전)와 이행 약속 제시를 근거로 세계 톱 레벨의 연구 대학이 되기 위한 잠재력을 가진 대학 7개교 선정

* 기본계획 발표('22.11월) → 공모('22.12월~'23.3월) → 인가 및 지원('24.~)

○ 선발 방식



- (기본계획) 국제탁월연구대학 인정 기준 및 방침의 책정

┃ 국제탁월연구대학 주요 인정 요건 ┃

- ✓ 자율성과 책임있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합의제 구성 및 법인화)
- ✓ 국제적으로 탁월한 연구성과의 창출(신진연구자 육성 등)
- ✓ 실효성 높고 의욕적인 사업 및 재무전략(연 3%이상의 사업성장 등)

- (인정신청) 인정기준에 모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 (계획신청) 연구체제 강화 목표, 사업내용·실시방법·실시시기, 필요한 자금액·조달방안 제출
- (심사) 민간 전문위원(CSTI)과 정부위원이 동시에 참여하여 주요인정 요건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추후 인정취소도 동위원회에서 논의
- (지원내용) 1개교 당 대학펀드(10조엔 펀드) 재정을 바탕으로 수천 억원 지원 및 7개교* 한정 *단계적으로 늘어나가되, 확대는 없음을 사전에 공지
 - 단기적인 성과주의를 지양하며 사업성장 및 연구력 강화를 객관적 지표에 의해 측정하고 특별한 문제 없으면 계속 지원
 - 6~10년 이후 평가 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가 계속될 경우 인정취소
- 대학의 변화
 - 국제탁월연구대학 선정을 위해 규모가 작거나 유사 강점 대학 간 통폐합 추진

붙임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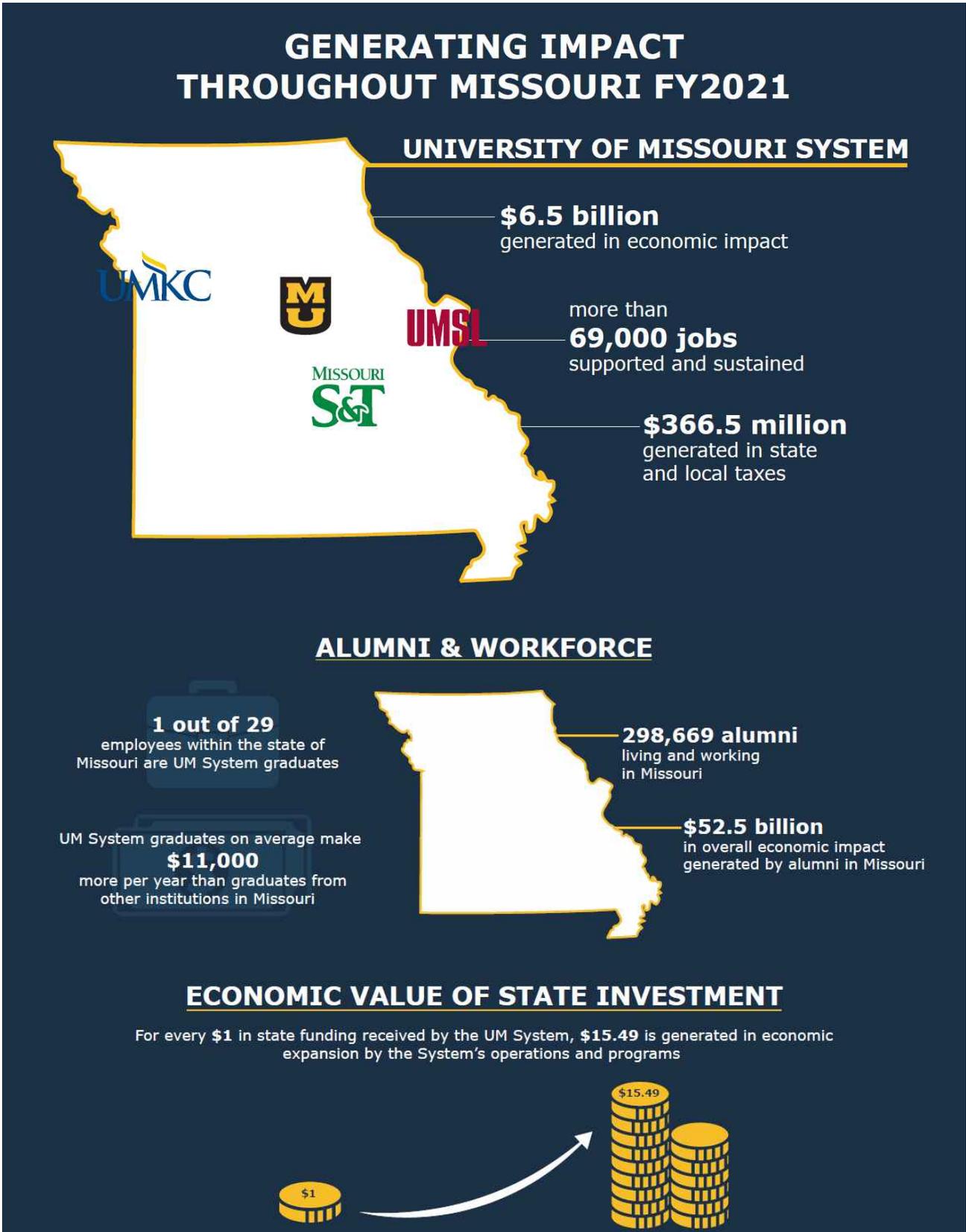
대학의 지역기여도 및 영향력 성과 분석(Impact)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량적인 지표를 이용하여 대학의 영향력을 산출하는 보고서 ○ 사회, 경제, 문화 등 사회의 다양한 부문에서 지역대학의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작성 ○ 발간보고서 및 데이터 대국민 공개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의 영향력을 기존의 추상적인 결과가 아닌 구체적 계량적 수치로서 확인하여 대학에 대한 인식 제고 ○ 대학의 사회적 영향력이 무엇인지 대국민 공개를 통해 지역대학의 중요성을 확산하기 위한 목적 ○ 데이터의 공개를 통해서 각종 대학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인 환류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기대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계량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수 핵심 지표 외 지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연구·분석하여 선정 - 학생들이 지역에서 소비한 규모, 교내 스펜오프 수 - 방문객(관광) 수익, 지역민 대상 이벤트 규모 - 지역정주인재 수, 지역고용 정도(정규직 기준), - 지역산업에 미친 영향력(혜택기업, 노동소득, 컨설팅수수액 등) - 지역에 창출한 GRDP, 소비규모, 지방세 납부액, 지적재산권 수입액 등 - 대학의 병원시설, 연구시설, 체육시설 등이 지역에 미친 영향력 ○ 대중이 인식하는 대학의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대학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조사(거주환경 등) - 빅데이터 상의 글로벌대학의 모습(워드클라우드 등) ○ 영향(Impact)이 도출되기 까지의 과정(Proc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전과 영향을 실천하기 위한 전략, 중간산출물 등 - 전략과 중간산출물 등의 상호 관계

※ 제시한 항목은 단순 예시로, 대학과 지역 여건 및 특성에 따라 변동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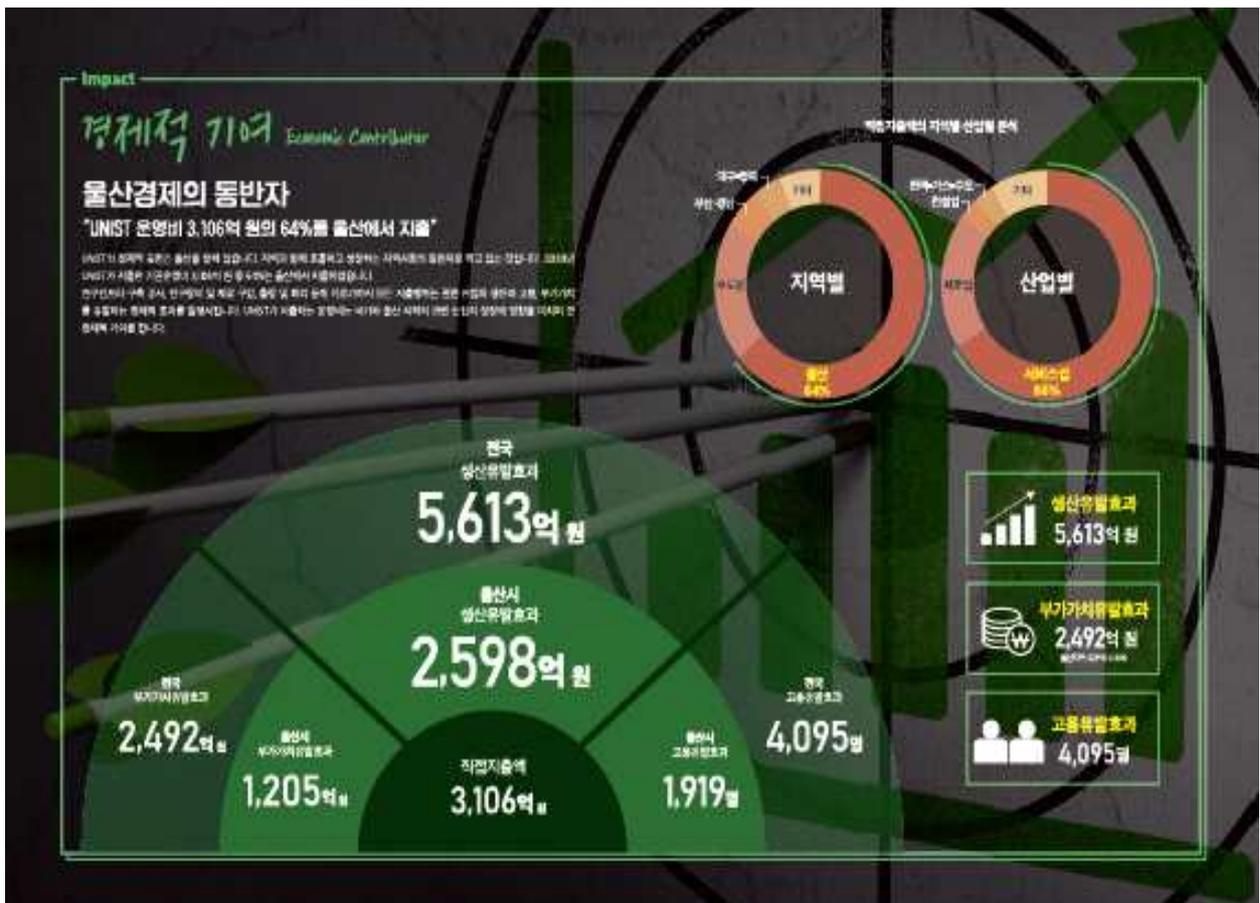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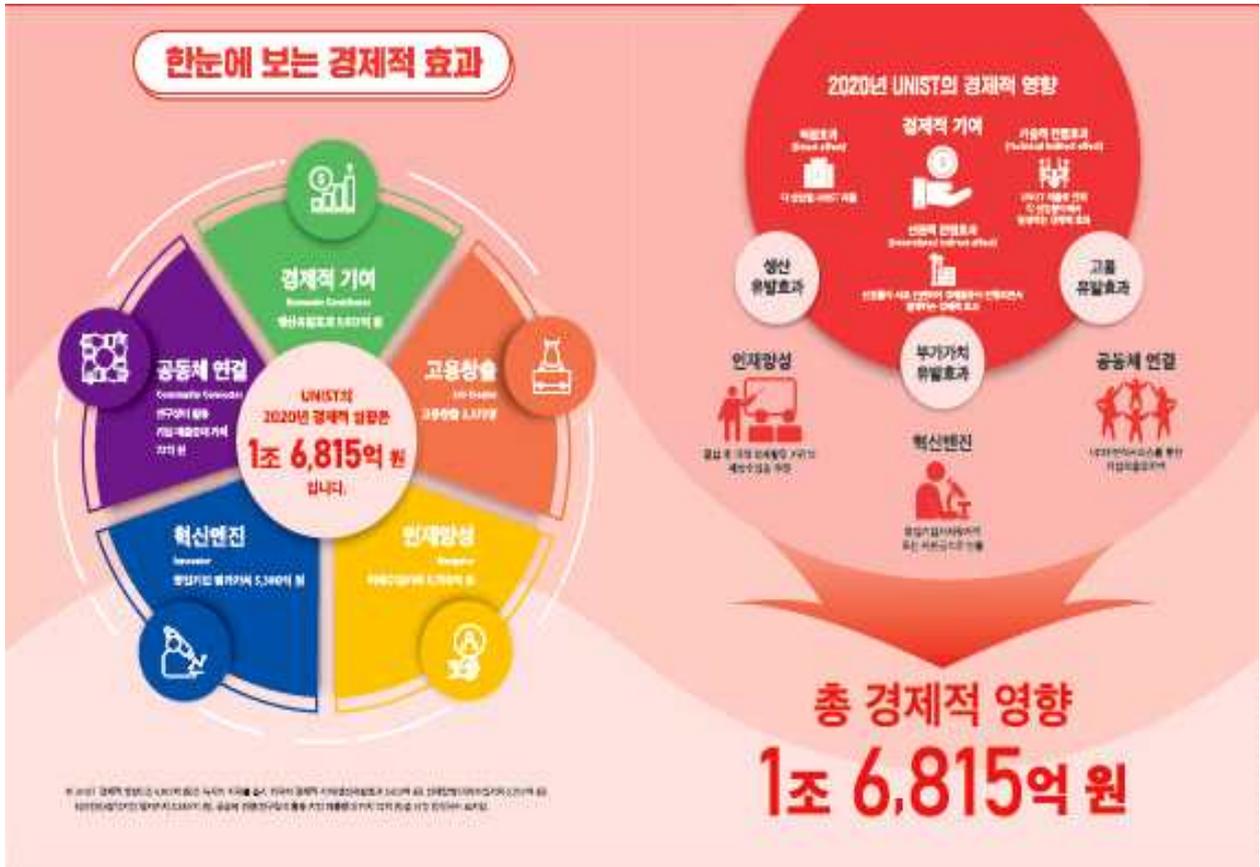
□ 대표적 사례

- (해외) University of Missouri System (Jan.2022)



※ 출처 : Economic and Community Impacts of the University of Missouri System(January 2022)

○ (국내) UNIST 이코노믹 임팩트



※ 출처 : 유니스트 이코노믹 임팩트('22.5월)